

두란노 소식

두란노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두란노교회 전교인 여름 수양회가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 그동안 함께 신앙 생활하며 정들었던 김태훈, 배은경집사님 가정이 캘거리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월 3일 주일은 TRUE WORSHIPERS12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순서로 "BACK TO SCHOOL CONCERT" 갖겠습니다.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도 시간은 매일 저녁 8~10시, 새벽 예배는 화~토 오전 6시,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많이 동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6. 2017년 10월 8일 추수감사주일에 두란노교회에서 세례교육과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셀을 통해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00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00

신앙 상담

647.980.5791

89 Finch W, North York ON, M2NH6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_____

두란노 교회

D / U / R / A / N / N / O C H U R C H

AUGUST 13, 2017



섬김의
손길

담임목사 이강화 목사
전도사 조선희 전도사
찬양팀 인도 | 구수진 사모, 강지연, 김샬리
연주 | 김동해, 오준성, 윤유진, 이웅희, 이기준
기술 | 이기훈, 한정훈, 박지은

대표기도자 20일 박미라 / 27일 이기훈 / 9월 3일 조정현 / 10일 박현미

주일 예배 순서

AUGUST 13, 2017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대표 기도	-----	박연숙 집사
헌금	-----	특송
성경봉독	-----	야고보서 2:14~22
말씀선포	-----	“행함”
축도	-----	이강화 목사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헌금은 예배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

하나님 형상의 회복, 예수 | 170806 수양회 주일예배
창세기 1:26~28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렴풋이 보여지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하고 십일조를 받은 멜기세덱, 아담과 씨름하며 아담을 축복한 주의 사자...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 기묘이며 모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하실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그 영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보완적으로 해석하며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의 빛은 창조의 첫 날의 빛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은유적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는 혼돈(formless)하며 공허(empty)합니다. 창조 전 우주의 모습뿐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기전 상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위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전 상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흑암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전에는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죄로 인해 죽을 자신의 처지도 전혀 알지 못하며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 단계는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 창조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어두운 인생이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영적 존재에 대해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의 창조는 공창이라는 기준을 통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창조의 핵심은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사망과 생명이 나뉘지고, 영의 것과 육의 것이 나뉘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지고 세상과 하나님이 나뉘집니다.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세상과 나뉘지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세상 것이 조금씩 싫어지고 세상 친구들과도 조금씩 멀어지고 이전 조금씩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고 교회 생활이 조금씩 거룩해집니다. 창세기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싸며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의 핵심은 다름 아닌 “씨”입니다.** 땅의 소산물이 셋째 창조의 내용인데, 모두가 다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와 채소와 과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셋째날 창조의 핵심은 씨요, 죽어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임을 의미하며 제자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넷째 날 창조의 핵심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입니다.** 첫째날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면 넷째날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은 예수의 빛을 품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죽어진 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의 빛이 나타나는 삶이 재현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속사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성숙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의 핵심은 “어디서나 풍성한 생명”입니다.** 창세기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에서도, 공중에서도 땅위에서도 물고기로 새들로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어딜가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 삶을 재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프로세스, 여섯째 날 창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형상을 가지지 않으신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형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라면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빨리 여섯째날을 향하여 우리 신앙의 궤도를 세우고 뛰어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